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로 미루기’ 벗어나야”

어제 도의회서 열린 제주대안교육 정책토론회서 도·교육청 협력·대안학교 인식 개선 필요성 제기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대안교육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도의회 김경미·송창권 의원이 주최하고 제주대안교육 협의회가 주관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송창권 의원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 관련 조례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상담에 대한 지원 주체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진단했다.

송 의원은 그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대안교육, 학업 중단 학생을 포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각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 대

한 조례를 활용해 점차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성공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비진학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등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속적 상담과 적성에 걸맞은 교육·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인 보물섬학교의 학부모 정평만 씨도 “제주도가 올해 2학기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책 지원 주체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

한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를 위한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 대안학교인 법서학교 이영이 교사는 “2001년 학교를 열 당시 10년 뒤엔 대안학교라는 규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대안학교에 다니고 하던 학교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학교도 분명히 학교인데, 시선 자체가 차별화돼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2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대안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차량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 1161건 적발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는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했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1건·1억5600만원을 적발해 지난 8월 과세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8건·2700만원이 납부됐다.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건·3900만원에 대해서는 이달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과세고지서 반송분 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해 그 가치가 상

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 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배움의 감동, 함께 느껴요” 내달 2일 제주시평생학습대회

제주시는 오는 11월 2일 제주시평생학습관 일대에서 ‘배움의 감동을 공유하고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제주시평생학습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여성취업지원기관,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강사, 학습자, 동아리 회원,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배움공감존, 학습공유존, 사례감동존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평생학습 체험수기와 사진, 그림, 홈페이지 등 평생학습작품 전시, 문해교육 시화전에 대한 시상, 동아리재능발표회 등 평생학습 종합성과에 대한 나눔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서귀포시, 신규 마을기업 내달 18일까지 모집

서귀포시는 주민 주도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신규 마을기업을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서귀포시 마을기업은 현재 16개가 지정돼 있다.

신청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 현지조사, 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료 최종 선정된다. 선정되면 5000만원(자부담 1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 마을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문의 760-224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난항 겪던 ‘과거사정리법’ 행안위 통과 위원회 활동재개·진실규명 범위 구체화

자유한국당 불참 속 의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2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 4년간 활동 후 필요성이 있을 때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실규명의 범위를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까지)로 구체화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대 국회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7건이 발의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올 들어 세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위 전체회의의 의결 직전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의 회부로 90일 동안 추가논의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도, 이념도, 정치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며 “난항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7일 서귀포 청소년 토론회

서귀포시와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공동 주최하고 혼디모형토론회교과교육연구회와 제주토론회교육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19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회’가 이달 27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열린다.

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논리

적 사고와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것으로 ▷중등부 8개교 22팀(66명) ▷고등부 4개교 6팀(18명)이 참가한다.

예선토론 논제는 ▷중등부 ‘남녀공학이 단성학교(남학교/여학교)보다 더 낫다’ ▷고등부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결승토론 ‘교복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가 주어진다. 문미숙기자

알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독특 튀는 교육특강**

한라일보는 도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학부모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배리틀 Gavert Atelier 수석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대양 해어의 원장인 **대한민국 대표 헤어 디자이너 태양 씨를 초청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을 통해 도내 학생,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는 물론 학생의 장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제	강사명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태양 (대한민국)

▶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한국부티고등학교
▶ 대상: 한국부티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수강료: 무료
▶ 주최: 한라일보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문의: 한라일보 064)750-2523 / 2540

한라일보 · JDC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점 지원사항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상담 및 지원
 - 각종 원산지증명서 상담·신청·발급까지 One Stop 종합서비스 제공
- 원산지(포괄)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
 - 수출 협력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류의 정확성을 전문가가 확인
- FTA 활용 현장방문 컨설팅
 - 상주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가 기업방문 컨설팅
- 수출·무역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방문 컨설팅
- FTA활용 종합지원 컨설팅
 - 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원산지검증/품목분류사전심사 등 기업수요에 맞춘 선택형 컨설팅
- FTA 설명회 및 교육
 - 원산지증명 발급실무 교육, 원산지실무사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FTA 트레이드 스쿨, FTA 활용사례 설명회, FTA 동향 설명회 등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 FTA 상담실 운영
 -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관세율 확인, 구매확인서 발급안내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참조(www.fta.go.kr/regions/jeju)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 757-2164, 759-2577, Fax 757-2168

산업통상자원부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